국내통상뉴스
해외통상뉴스
공사무역소식
팩스신문 ■수산물수출입뉴스■록록

## 국내통상뉴스

**금년산 우리 “배” 수출가능국가 크게 늘어**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는 우리 배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그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과 협의한 결과 작년말과 올해초 칠레( ‘99.3), 뉴질랜드( ‘99.10), 호주( ‘00.3), 남아공( ‘00.3) 등과 배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하였다.

□ 우리 배는 북미, 유럽, 동남아 일본 등에 수출이 가능하나 미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 ‘99년산의 경우 전체 수출량 4,927톤의 60%가 미국으로 수출되어 물량이 집중된 수출 말기에 일부 출혈수출 사례 발생하였고

○ 대미 수출은 수출단지와 선과장에 대해 미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수출량의 대폭 증대는 어려운 실정이며

○ 현지검역을 위한 미 검역관 초청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신규 수출가능국들은 미국에 비하여 수출검역요건이 간단하고 우리 검역관이 단독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수출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남반구에 위치하여 우리 배와 경합되는 과실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수출이 이루어지므로 수출기반 조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합의된 수출검역요건

- 호주 : 수출단지 지정 + 꽃잎·꽃송이 검사 + 우리검역관단독 수출검사
- 칠레, 뉴질랜드, 남아공 : 특별한 요건이 없음(우리검역관단독 수출검사)

※ 미국 : 수출단지 지정+재배지 검사+합동 수출검사

□ 앞으로 국내 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불안정에 대비하고, 풍작 등에 의한 국내 공급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 수출의 다변화가 요청되는 바,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 수출 증가는 물론 적정한 수준으로 국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 국내 배 생산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인삼, 국제거래 규제 품목에서 제외키로 결정**

○ 우리나라의 인삼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삼의 보호를 위한 국제거래 규제품

목에서 제외키로 결정되었다. 2000.4.10~20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1차 당사국 총회는 야생삼(Panax Ginseng)을 멸종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CITES협약 부속서상의 교역규제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러시아산 야생삼을 교역규제 품목에 등재키로 합의하였다.

○ 지난 '99년 6월 호주 다윈에서 개최된 CITES 식물위원회에서 러시아가 러시아산 야생인삼의 불법 밀거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삼(Panax ginseng)을 CITES 협약상의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제안서를 제출한 바, 우리의 재배인삼과 학명이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배인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 우리나라는 상기 러시아의 제안이 궁극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보호라는 CITES 협약상의 취지에는 부합되나, 동 제안으로 인해 단일 농산물로서는 제2위의 수출액( '99년의 경우 8천4백만불)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재배인삼 수출시 재배된 것임을 증명하는 소위 인공증식증명서(Certificate of Artificial Propagation)를 발급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 동 러시아 제안에 대해 적용범위를 러시아산 야생인삼만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교섭에 임해왔다.

○ 우리측의 문제점 지적으로 인해 상기 '99년 6월 CITES 식물위원회에서 러시아측 제안은 채택되지 못했으나, 러시아측이 동일한 제안을 금번 당사국총회 의제로 제출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하에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을 강구해 왔다. 특히, 동 제안이 야생식물의 보전이라는 이유에서 CITES 사무국 및 NGO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국제사회의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방안을 모색해 왔다.

○ 이에 따라, 우리는 지난 2000년 2월 러시아 제안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상세 설명자료를 작성, 사무국 및 150여 당사국에 배포하였으며, 2000년 2월 CITES 아시아지역회의(캄보디아 프놈펜)등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비교적 인삼에 대한 이해가 넓은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획득 활동을 전개하였다.

○ 금번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은 두차례에 걸쳐 러시아와의 양자 협의를 개최하여 러측 제안의 규제대상으로 러시아산 인삼만을 포함하는 절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금번 당사국총회의 아시아지역그룹 대표직 수행 등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우리 입장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 및 IWMC(국제자연보전기금) 등 CITES 관련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우리 입장 지지 발표를 유도하면서, 결국 러시아가 우리측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 지난 '73년 3월 워싱턴에서 채택된 CITES협약(일면 워싱턴협약)은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교역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제

환경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7월 CITES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돼지고기 수출부위(안심, 등심)만 수매 비축키로**

□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지난 3. 29일부터 돼지 생체 전체를 수매후 가공·비축하여 왔으나, 삼겹살·목심 등 내수 부위의 원활한 공급과 돼지고기 수출업체의 경영난 완화 등을 위해 지난4. 20일부터 돼지고기 수출업체가 농가로부터 매입하여 도축·가공후 내수판매가 어려운 안심·등심 등 수출부위는 정부가 수매·비축하고, 기타 부위는 업체 자율로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동안 돼지고기 수출업체의 경우 1일 국내 총 도축량의 45%인 19,000두 수준을 도축하여 이중 안심·등심 등은 수출하고 나머지 부위는 국내시장에 판매하여 왔으나, 수출중단으로 수출부위 재고가 누증되어 내수부위 판매를 위한 돼지 매입이 어렵게 됨으로써 농가의 출하적체와 삼겹살·목살 등의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되었다.

○ 이에 따라, 돼지고기 수출업체가 농가로부터 현행 정부수매가(100kg 성돈기준 143천원)로 직접 매입하여 도축·가공한 후 수출부위인 안심·등심은 전량 정부가 원가로 수매하고, 나머지 부위는 자율적으로 판매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수매자금 부담과 수출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부위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키로 하였다.

□ 한편, 농림부는 돼지고기 수출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농가로부터 돼지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약 1주일분의 수매선도금 19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수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용 안심·등심 3,335톤은 현행 수매원가로 정부가 매입키로 하였다.

○ 아울러, 수출업체에 지원된 정책자금중 농안기금 617억원과 축산발전기금 158억원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1년간 연기해 주기로 하였다.

□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이동이 제한된 지역내에서의 돼지 등 가축수매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다만 도태한 어미돼지는 생체중이 커서 도축처리가 어렵고 육질이 저하되어 수매후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새끼돼지와 마찬가지로 농가 희망시 자체 폐기할 경우 수매가격(두당 231천원)을 지급키로 하였다.

**식물 신품종보호대상작물을 추가지정**

□ 농림부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우량 신품종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시행중인 품종보호제도의 대상작물을 추가지정하여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 현재 품종보호제도는 벼, 보리, 콩 등 27개 작물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화훼류 등 품종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닌 작물은 신품종개발이 부진하고, 우수 신품종의 도입이 어려운점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수

출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농림부는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한 '98년부터 품종보호심사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실시의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품종보호대상작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신품종 개발을 촉진키로 하였다.

○ 이번에 품종보호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작물은 고구마, 메론, 포도, 참깨, 인삼과 상사화류 등 우리나라의 품종개발 경쟁력이 높은 작물과 재배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화훼류 등 30개 작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번 품종보호대상작물 추가지정으로 신품종개발이 촉진되어 종자산업의 활성화와 우리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매년 대상작물 확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 고>**

□ 현행 품종보호대상작물 : 27개 속(屬) 또는 종(種)

○ 식량작물(6)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 채소(14) : 무, 배추, 양배추, 수박, 호박, 오이, 참외, 고추, 토마토,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 과수(3) : 사과, 배, 복숭아

○ 화훼(1) : 비모란선인장

○ 사료작물(3) : 라이그라스, 톨페스튜, 레드클로버

□ 2000년 품종보호대상작물 추가지정 대상작물 : 30개 속 또는 종

○ 식량작물(2) : 귀리, 고구마

○ 채소류(3) : 멜론, 녹색꽃양배추, 꽃양배추

○ 과수류(2) : 포도, 유자

○ 화훼류(14) : 리시안서스, 페튜니아, 고데치아, 봉선화, 히야신스, 시클라멘, 개나리, 무궁화, 알스트로메리아, 금어초, 팬지, 데이지, 상사화류, 조개나물

○ 특용작물(7) : 참깨, 들깨, 땅콩, 유채, 당귀, 황기, 느타리버섯

○ 사료작물(1) : 오차드그라스

○ 기타(1) : 인삼

**수입식물 검역대상병해충 72종 추가 지정 고시**

○ 농림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물을 검역할 때 소독이나 폐기 반송 등의 검역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72종의 병해충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검역병해충으로 추가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검역상 규제하고 있는 병해충은 총 1,709종에서 1,781종으로 확대되었다.

○ 이번에 고시한 검역대상병해충 72종(병원체 7, 해충 61, 잡초 4)은 지난해 2월 9일 통합고시 이후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에 대하여 국립식물검역소가 분류하고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 검역병해충은 '95.1.1. 발효된 WTO/SPS 협정에 따라 식물검역의 투명성과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72종의 검역병해충이 추가로 지정고시 됨에 따라

- 앞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이 더욱 강화될 뿐 아니라
- 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식물검역의 과학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레 Santiago산 포도 및 키위의 수입을 금지키로**

○ 칠레측 식물검역 당국은 2000. 4. 4일 우리 나라 식물검역소에 접수된 서신을 통하여 칠레 산티애고시의 누노아(Nunoa) 지역 3개 지점에서 3마리의 지중해 과실파리 성충이 발견되었다고 통보해 왔다.

○ 이에 국립식물검역소는 식물방역법과 한·칠레간 식물검역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티애고지역산 포도와 키위에 대하여 대한국 수출을 전면 금지해줄 것을 칠레측에 요청하였다.

○ 이와 동시에 지난 3월 30일부터 동 지역산 포도와 키위가 이미 선적되어 수송중에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들 화물이 한국에 도착할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저온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로 소독 처리하도록 일선 검역소에 지시하였다.

○ 이는 누노아지역이 대한국 수출용 과수생산단지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인접지역에 대한국 수출용 포도 생산단지와 키위 생산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취한 긴급조치이다.

○ 현재 칠레산 포도와 키위는 한국 수출단지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된 것에 한해 한국으로의 수출이 허용되어 있으며, 칠레측은 과실파리에 대해 수출단지와 항구 등에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및 키위에 대해 검역적 안전성을 보증해 주도록 되어있다.

**수출농산물 현지전문기술 교육**

○ 농축산물 수출시 가장 큰 애로점은 수출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규격기준에 알맞은 고품질의 수출농산물을 값싸게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농산물 생산 농업인에게 새품종·새기술 및 해외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수출품 생산현장의 문제점을 현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전국의 2,700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2000년도 수출농축산물 현지전문기술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는데 교육수요 조

사 결과 농업인의 호응이 높아 전국의 주산단지 34개소에서 토마토, 오이 등 16개 품목에 2,700명이 신청하였다.

○ 수출농업은 농촌진흥사업의 핵심과제로서 수출농축산물 현지전문기술교육을 통해서 고품질의 수출 규격품을 생산토록 함으로써 금년도 정부의 수출목표 21억불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이번 교육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교육시간, 장소, 참석인원 등에 대하여는 농업인이 희망하는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교육시기는 3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인원은 34회 2,700명이며, 채소가 18회 1,360명, 과수 9회 910명, 화훼 2회 100명, 축산 3회 160명, 특용작물 2회 170명이다.

**"간이정액 환급율표" 마련**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김치 등 3,374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 환급율표』를 만들어 고시한다. 이 고시는 2000. 4. 1부터 적용한다.

* 이 표는 여건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간 환급실적이 3억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하인 자가 물품을 수출한 뒤에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게기된 금액에 따라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 때에 관세 환급에 필요한 납부세액증빙서류, 원자재소요량내역 등에 관한 서류제출 등이 모두 생략된다.

○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시행으로 약10,570개의 중소기업(품목 추가에 따라 450개 업체 증가)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율소요량제도(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계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이 이를 인정하여 관세환급을 해 주는 제도)와 함께 이 제도가 활용되면서 중소기업의 비용과 인력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액재배 장미의 접목묘 이용 효과 좋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장미 양액재배시 접삽묘나 아접묘를이용하여 절화수량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화훼재배농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에 의하면, 장미를 양액재배할 때 대부분이 삽목묘(장미줄기를 잘라서 바로 삽목 발근시킨 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삽목묘는 품종이나 시기에

따라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아 묘생산에 실패하는 농가가 많을 뿐 아니라 초기생육 및 저온에서 자람이 나쁘고,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배양액이나 환경변화에 민감하여 절화수량이 적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도농업기술원의 화훼연구팀이 지난 '98년 3월 12일 노브레스품종의 ① 줄기를 그대로 삽목한 묘 ② 찔레가지에 장미줄기를 접목한 접삽묘(접목과 삽목을 동시에 실시), ③ 전년도 가을에 찔레의 실생대목에 아접(눈접)한 묘를 동일 온실에 심어 2년간 양액재배 시험을 실시한 결과, 10주당 전체 절화수량은 삽목묘의 224본보다 접삽묘와 아접묘가 15~27% 증수되었으며, 특히 꽃가격이 비싼 겨울철에 수량이 많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절화의 길이가 60㎝ 이상되는 상등품 수량도 삽목묘 보다 접삽묘나 아접묘에서 월등히 많아 추가되는 묘목생산비를 감안하여도 30~60%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편, 화훼연구팀에 따르면 접삽묘나 아접묘는 묘생산비가 다소 더 소요되지만 대목으로 사용한 찔레는 장미보다 뿌리가 튼튼하고, 흡비력이 강하여 수세가 좋고 저온기인 겨울에 자람이 좋기 때문에 절화수량이 많고 품질이 좋아진다고 밝히면서, 아접묘를 사용할 경우 묘목생산포에서 병충해가 옮겨올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묘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미의 양액재배는 지난 '91년에 국내에 도입된 재배기술로 그동안 인공재배를 이용한 양액재배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체 장미재배면적(678㏊)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꽃을 생산해야만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양액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용 가지 내병성 대목자원 도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가지 대목을 외국의 종묘회사로부터 확보하여 머지 않아 수출용 가지 재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도 농업기술원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가지 재배의 대부분이 접목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무접목묘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설 연작지에서의 무접목 재배시에는 청고병, 반신위조병, 반고병 등의 토양전염성 병해 발생이 극심하여 가지 재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육성 시판되고 있는 품종들은 대개 긴 장가지 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계란형, 중란형, 장란형, 장형 등 여러 가지 품종들로 가지의 모양이 다양함에 따라 품종별로 생리생태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를 재배하여 일본에 수출코자 할 때는 일본의 요구 품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접목방법과 가지치기에서 실패하기 쉽다.

일본에서는 접목재배를 하지 않은 상품은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수출을 위한 가지는 반드시 접목재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토양전염성 병해인 청고병, 반신위조병, 반고병 등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대목이 개발되지 않아 곤란을 겪어 왔으나, 최근 도농업

기술원에서는 외국 종묘회사들로부터 야생종 가지인 Solamon Torum, Solamon Integrifolium 등 6종의 내병성 가지 대목을 분양 받아 독자적인 대목 품종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지의 국내 재배면적은 968ha로 거의 정체 상태에 있으나, 수출용 가지의 재배면적은 증가되고 있다. 일본의 가지 생산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14,000ha, '97) 다른 과채류에 비해 시설재배 비율이 낮은 편으로 단경기 물량공급이 여의치 않아, 우리로서는 수출 가능성이 밝은 작목이다. '99년도 수출실적은 1,741톤(3백5십만불)이다.

**농림부, 국내외 인터넷 Domain 대소유주로 등장**

○ 최근 네티즌들 간의 사이버상에서 돈이 될만한 이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인삼과 전통식품인 된장·간장·고추장 등의 국내외 인터넷 도메인을 일찍이 등록함으로써 국내외 인터넷 도메인 대소유주로 등장하였다.

○ 농림부가 직접 등록한 국내외 인터넷 도메인은 총 105개이며, 이중에 인삼·된장·간장·고추장 등의 한국식 발음의 영문표기를 다양하게 등록하였다.

- 인삼 : koreainsam, koreajinseng
- 된장 : doenchang, toenchang, toenjang
- 간장 : ganchang, kanchang
- 고추장 : gochuchang, kochuchang

※ 아울러 영어 표현에 따라 soybeanpaste(된장), redpepper-paste (고추장), soybeansauce(간장) 등도 등록을 완료하였음.

○ 앞으로 국내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인터넷 도메인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게 될 전망이며,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터넷 도메인 확보가 필요한 전통식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등록해 나갈 계획이며,

- 또한, 등록된 도메인의 효과적인 관리와 전통식품 홍보를 위해 조만간 홈페이지도 개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2000년도 농업용면세유 공급량 늘려 영농비 부담 줄인다**

□ 2000 농업용면세유 공급량 확대

○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86. 3. 1부터 농업용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을 전액 면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 2000년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량은 '99공급량 2,449천㎘보다 6% 늘어난 2,595천㎘ 공급키로 하였다

- ( '99) 2,449천㎘ → (2000) 2,595

□ 2001년에도 농업용면세유 지속 공급 추진

○ 정부의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98년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기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다.

- 이는 면세유 공급제도가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농림부장관이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 제도의 존치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조세감면평가서 및 건의서를 2000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의 실효성, 재정여건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조세감면의 존치여부와 조세감면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게 된다.

**수출유망작목 "채두(풋강낭콩)" 신작형 개발**

○ 경북농업기술원은 새로운 수출작물로 채두(풋강낭콩)의 재배법과 작형을 개발하여 조기에 농가에 보급하고 전국 최초로 채두를 일본에 수출하여 매우 높은 수익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채두는 일본과 선진국에서는 식생활에 많이 식용하는 채소작물 중의 하나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작물이다. 특히 일본에서 재배가 어렵고 가격이 높은 겨울철 1월에서 3월 사이에 재배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지난 1월 11일에 수출업체를 통하여 15kg을 첫 수출하여 1kg에 11,000원을 경매가로 받았다.

이 정도의 가격이면 다른 채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이며 인건비와 연료비를 감안하여도 경제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 채소연구팀에 따르면 작년 봄부터 일본시장 조사를 거쳐 채두종자를 입수하여 1차 시험재배를 거쳐 작년 10월말에 파종, 11월말에 이중비닐하우스에 정식하여 금년 1월초에 수확을 하기 시작했다.

채두가 수출작물로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첫째, 재배기간이 짧다는 장점인데 육묘기간과 재배 및 수확기를 모두 합쳐서 3개월이면 된다.

둘째, 비교적 저온에서 생육이 잘되므로 난방비가 절감된다.

세째, 일본에서 1~ 3월에 수확량이 없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채두 일본종 4종과 국내 우량종 2종을 공시하여 시험한 결과 10a(300평)당 500~600㎏을 수확 할 수 있어 1kg당 10,000원을 기준한다면 5백만원에서 6백만원의 높은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재배기술과 재배작형을 일반농가에 보급 할 것을 계획하고 금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기술지도와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선정하여 수출 채두를 보급할 계획이다.

## 해외통상뉴스

**일본 수입제도개선, 수출확대 기대**

일본 정부가 시장 개방과 수입수속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우리측 제기 사항이 반영, 업계의 적극적인 대일본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주요조치>

▲식품검사기관을 민간으로 개방한다. 따라서 민간검사기관도 식품위생법상의 대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또 검사기관 지정시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이나 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지정의 취소 등 검사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리의 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

**▲ 김 독점적 수입제도 폐지**

한국은 일본 김협회의 독점적 수입제도를 폐지하고 할당방식제도로의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의 김에 대한 신할당방식제도는 할당량의 3분의 2가 수요자 할당으로 그 신청자격도 협회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입제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건조김과 조미김의 수입비율이 고정화(99년 건조김 80%, 조미김 20%)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여 전체 할당금액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착순할당규모의 참가자격을 10만달러 이상의 수입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토록 현재의 요건을 완화토록 요청했다. 또 통산성의 김수입 공고가 매년 2월이지만 한국의 김생산 시기에 맞추어 사전에 수출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2월에서 12월로 공고시기의 변경도 희망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통상공시에 총할당 한도 수량을 '99년의 6900만장에서 1억2천만장(전년대비 74% 증가)으로 수입규모를 늘리고, 총할당 한도 수량에 차지하는 수요자할당비율을 67%에서 63%로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선착순할당을 5배로 확대하고, 그 신청참가자격인 10만달러 이상의 수입실적 보유라는 요건을 폐지했다.

**▲ 식물검역기준 재검토**

일본 검역당국의 과도한 검역기준으로 인해, 한국산 신선 야채류(오이, 당근, 고추, 상추, 양배추) 및 절화류(장미, 백합, 국화 등)의 일본 수출에 있어 소독으로 인해 상품성의 저하나 불필요한 검역비용의 부담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히 5개의 병해충(Thrips palmi, Franklinniella occidentalis, Myzus persicae, Macrosiphum euphorbac, Acarussiro)에 관해서 일본에서도 널리 분포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비검역병해충으로서 지정토록 요청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비검역 병해충인 5종류 가운데 Acarussiro를 제외하고 4종은 일본의 발생방제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중요한 해충이며, 국제식물방역조약(IPPC)의 검역유해동식물에 해당되고 있어 이의 해제를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러한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국내식물은 방제권고를 내리고 있으며, 수입품은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 건은 후에 한일 식물검역실무자회의의 안건으로 채택,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북경농업무역관

### 중국, 미국산 감귤류, 육류, 밀 수입위한 최종규정 발표

중국이 미국산 감귤류, 육류 및 가금육, 밀의 수입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확정하였다고 미 무역대표부와 농무부는 3월 22일 밝혔다. 중국정부가 회람(circulars)으로 명명한 이 규정은 '99년 4월 양국간에 체결된 미·중 농업협력 협정의 최종 이행을 위한 것이다.

## 동경농업무역관

### 가공식품 알레르기물질 일본 후생성이 표시의무화

계란과 우유 등의 알레르기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후생성은 2001년 4월부터 실시를 목표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알레르기물질의 표시를 식품위생법으로 의무화키로 방침을 세웠다. 식물알레르기에 고민하는 소비자는 앞으로 자기병상에 따라 가공식품 선택이 가능하게되며, 메이커측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미량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견으로는 원재료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가공식품이 많아 표시를 의무화키로 하였다.

대상원재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예정이며 ① 알레르기 물질이 포함된것이 명확 ② 혈압저하, 호흡곤란 등 무서운 건강피해를 일으키는것 ③ 연1회이상 건강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등이 조건으로 우유, 계란외에 생선, 갑곡류, 땅콩 등을 들 수 있다.

원재료의 함유량에 상관없이 표기는 필요하고, 단지 알레르기 질환에 고민하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떤 원재료로 병상을 일으키는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표시는 불필요로 하였다. 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은 외견상 식품속의 알레르기 물질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전체의 용기포장 된 가공식품이다. 제조자측은 소비자로부터 원재료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법률시행에 상관없이 표시를 추진하겠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각회사들은 원재료는 파악하고 있으며, 표시로 인한 코스트증가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오사카농업무역관

### 미·일 정부 식물검역 간소화 합의 예정

미·일 양국정부는 일본의 새로운 식물검역제도에 대해서 병충해의 소독효과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사과 등 품종에 관계없이 수입을 인정하는 『공통기준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4월 7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기구(DSB) 회합에서 양국에 의한 협의진전상황을 보고하였다.

미국 등은 병충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출하기 전에 사과를 훈증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소독제의 양과 훈증시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그 효과가 일정한 수준이상이라고 판명되면 일본에서는 수입을 허락하는 형태이다. 이로 인해 사과 수출국은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검역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이 『수입 제한적인 조치이다』라고 '97년 11월에 WTO에 제소하였으며 '98년 10월 분쟁처리소위원회 및 상급위원회의 최종보고에서 패소한 일본은 미ㅎ일 양국의 전문가가 함께 신제도에 대한 최종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 화란농업무역관

### 이태리, PVC 식품포장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식품포장에 PVC막(film)사용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은 '99년도부터 널리 알려져 식품포장은 물론 어린이용 장난감에도 PVC 사용금지를 주장해 왔는데 최근 이태리 정부는 '99년 12월 제정한 새법규 degree 538/99를 통해 지방질이 높은 식품(마요네즈, 고지방치즈 등)포장에 PVC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위험물질은 PVC자체가 아니라 PVC를 부드럽고 신축성 있게 하기위해 첨가하는 phthalates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봉합이 완벽해지며 식품내용물 보호효과가 한층 높아진다. phthalates 사용은 이미 degree 572/96(96년도 개정안)법규에서도 지방질이 높은 식품의 경우 그 사용량은 5%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egree 538/99법규를 통해 고지방식품포장에는 전면사용금지하며 그 외 식품포장의 경우 최고 5%까지 허가하고 있다. 식품가공업자는 이미 포장된 식품은 1년간 연장판매할 수 있으나 위 사실은 이미 99년도에 널리 알려져 대부분의 가공업체들은 지방질식품포장에 phthalates 사용을 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영국, 라벨링 개선을 위한 소비자대상 조사결과

영국의 농수산부는 자국의 라벨링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라벨에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영국소비자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예상외로 조사대상의 1/3이 식품구입 시 식품정보를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을 읽는 소비자들의 39%가 지방포함량을 , 29%가 원료명을, 24%가 유통기한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이 유전자변형식품인지를 주시하는 소비자들은 그 여부를 라벨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원료리스트와 첨가물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식품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라벨을 읽는 주목적은 '식품을 소비자가 필요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와 '가격과 품질 비교'이다. 또한 78%가 조리 방법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경우 주로 지방질함량, 설탕함량, 소금함량 등을 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2%가 유통기한 날짜는 항상 라벨의 하단부분에 기재해야 하며, 85%가 원료리스트를, 83%가 가격표시를 각각 요구했다. 10%가 "신선(fresh)"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오늘 중에 딴 것이어야 하며, 20%이상이 저장식품(캔, 가공식품 등)에는 "신선"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12%가 "신선"문구는 냉동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의 1/3이 "순수(pure)"라는 문구사용은 다른 원료나 첨가물(혹은 유럽위원회에서 허가된 E-번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더 많은 정보를 라벨에 기재해야한다는 의견과 현재로써 충분하다는 의견은 각각 48%로 상반되고 있다.

## 뉴욕농업무역관

### 미 식품협회, 한국 등 미 식품 주요수출국 무역장벽 조사 요구

미국식품제조협회(GMA)와 관련 단체들이 가공식품 및 음료류의 수출시 직면하게 되는 세계각국의 무역장벽을 심도 깊게 조사분석해 줄 것을 미 농무부에 요청하였다.

협회는 미 농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가공식품 및 음료류의 무역 증가율이 일차 농산물의 두 배 이상으로 내년에는 전세계 식품 및 농산물 전체 교역량의 7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러나 세계 각국의 지나치게 높은 관세, 쿼타, 수출보조금, 보건안전 및 식물검역 등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수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연맹, 중국, 한국,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브라질, 이스라엘, 인도, 남아프리카 등 주요 수출국의 현재의 관세율 및 무역현황을 검토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건의한다. GMA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품, 음료류 제조업체 연합으로 회원업체는 미국내에서만 매출액이 4600억불이며 2.5백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 캐나다 · 러시아, 식물검역 분야 양해각서 체결

지난 2월 22일 캐나다 식품검역국 (CFIA)과 러시아 주식물검역서비스 (State Plant Quarantine Service)는 양국간 무역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수개월의 협상 결과 체결된 이번 각서는 식물검역 분야에서 양국의 광범위한 협력과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함을 내용으로 한다. 양해각서의 부록에는 캐나다산 감자종자, 사료용 작물종자, 곡물종자의 수입을 위한 러시아의 식물검역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U, 일부 수산품 관세인하**

4월초 유럽연합은 대구, 오징어, 맛살, 새우 등 수산물의 쿼터를 활당하고 관세를 인하하였다. 그 중 일부 품목의 쿼터 및 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쿼터를 초과하는 품목중에는 관세가 20%에 달하는 것도 있다.

| 품 종 | 쿼 터 | 관 세 율 |
|---|---|---|
| 대 구 | 90,000톤 | 3% |
| 맛 살 | 16,000톤 | 3.5% |
| 오징어 | 11,000톤 | 3% |
| 청 어 | 20,000톤 | 0% |
| 새우(Northern Shrimp) | 5,000톤 | 6% |

**미 한국산 수산물 수입업체, 수입선 변화조짐**

2000년 들어 미 식품의약국(FDA)의 수산물 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대부분의 한국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통관 및 위생검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으로 수입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FDA는 지난 2, 3년간의 수산물 HACCP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후 현재 3개월마다 유통업체에 HACCP 검사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때 수출업체의 HACCP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수입품은 요주의 품목으로 샘플링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통관시에도 마찬가지로 HACCP 서류가 필수통관서류는 아니지만 구비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샘플링 빈도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현재 FDA 등록으로 HACCP 인증서를 받은 한국의 업체는 4개업체 5개 공장으로 패류에 한정되어 있다.

'명태 코다리'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겪은 뉴욕소재 한 업체는, 'HACCP 인증서를 갖추지 못한 타국 업체의 경우 FDA의 HACCP 규정에 상응하는 위생처리 과정을 거쳤다는 내용의 자국 관계기관 발행 서류를 첨부하기도 하는데 이때 상당 수준 정상 참작이 되고 있는 관계로 한국의 수출업체는 궁극적으로는 HACCP 인증서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우선은 한국내 기관 발행 유사서류만이라도 첨부하려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현재 연간 약 7천만불에 이르는 한국산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 유지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HACCP 인증서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 및 수출업체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사무역소식

# 2000년 채소류 판매촉진비 지원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채소류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2000년 채소류 판매촉진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지원규모** : 3,760백만원
2. **지원대상**

○ 채소류를 수출하는 업체, 생산자(단체) 및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수출물류비를 실제로 부담한 자

3. **지원품목** : 채소류(엽채류, 근채류, 과채류, 버섯류, 건조 및 냉동채소)
4. **지원내용** : 채소류 수출물류비(포장재비,운송비,선별비)의 100% 이내

- 단, 수출물량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5.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품목별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수출물량기준 (70%), 수출금액기준 (30%)을 병산하여 지원
6. **지원 및 신청절차**

○ 지원신청 :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및 영농조합 법인 등 신청 대상자가 공사 각 관할지사에 분기별로 신청

- 수출업체와 생산농가는 실제 물류비 부담여부를 상호협의후 수출자 명의로 일괄 지원 신청

○ 지원 및 신청시기 : 매분기말 익월(4, 7, 10월 각10일, 12월은 5일)

- 제출서류

① 채소류 판매촉진비 지원신청서(공사 소정양식)

② 채소류 수출실적 증빙서류 (수출신고필증, B/L 원본)

○ 서류 제출처 : 공사관할 지사(소) 수출유통부

| 지사명 | 전화번호 | 지소명 | 전화번호 |
|---|---|---|---|
| 중부지사 | XXXXXXXX | 인천지소 | XXXXXXXXX |
| 충청지사 | XXXXXXXXX | 강원지소 | XXXXXXXXXX |
| 호남지사 | XXXXXXXXX | 충북지소 | XXXXXXXXXX |
| 경북지사 | XXXXXXXXX | 전북지소 | XXXXXXXXXX |
| 경남지사 | XXXXXXXXX | 제주지소 | XXXXXXXXX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수출개발2팀(T.XXXXXX), 또는 각지사(소) 수출유통부로 문의 바랍니다.

# 2000년 화훼 판매촉진비 지원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화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훼류 판매촉진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규모** : 3,565백만원
2.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화훼류 전품목(구근, 묘목, 절화, 절지절엽, 화초종자 등)

○ 지원대상자 : 화훼류 수출실적이 있는자, 수출품 생산자(단, 수출자와 물류비에 대한 합의서 첨부)

3. **지원기간** : 2000.1.1 ~ 11.30 (단, '99.12.16~31까지 수출분 포함)
4. **지원내용**

○ 화훼류 수출물류비(포장비, 선별비, 운송비)의 100%이내

- 단 수출물량이 예산을 초과할 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품목별, 지역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후 수출물량 기준(70%), 수출액기준 인센티브(30%)를 병산하여 지원(단, 수출금액기준 인센티브(30%) 지원 대상은 수출실적이 US$100,000이상 업체로서 실적 도달시점 분기신청시 소급적용 지원)
6. **지원 및 신청 절차**

○ 지원신청 : 신청대상자가 품목별·지역별 수출실적 등 작성 관할 지사에 분기별로 신청

○ 신청시기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단, 1/4분기는 4월15일, 4/4분기는 12월5일)

○ 신청서류

- 2000화훼판매촉진사업 지원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수출면장 및 B/L 원본 및 사본 각 1부(원본은 대조후 반환)
- 계좌입금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단, 장미의 경우 : 장미수출 자진신고서, 로얄티공제동의서, 스티커구매확인증 각 1부

7. **제출처** : 신청자 행정구역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소) 수출유통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수출개발처 수출개발 1팀 (02-798- 8591), 또는 각지사(소) 수출유통부로 문의 바랍니다.

# 수출입팩스신문목록

「농수산물 수출입뉴스」는 농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 2회(화, 금) 발행하는 FAX 신문입니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www.kati.net) 및 하이텔, 천리안 등 PC통신망(go kati)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간호(일자) | 제 목 | 자 료 원 |
|---|---|---|
| 제176호 (4. 4) | 2000년 채소류·김치 판매촉진비 지원공고 | 유통공사 수출개발2팀 김덕남 |
| | 일본 편의점서 한국식품 인기몰이 | 동경농업무역관 정영남 |
| | 안성지역 화훼수출컨설팅 11일 개최 | 유통공사 수출개발1팀 황형연 |
| | 농진청, 수출농산물 현지 전문기술교육 | 농촌진흥청 원예축산과 정해웅 |
| | 공사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 안내' 발간 | 유통공사 수출기획팀 우상대 |
| | 관세청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 이달부터 적용 | 관세청 심사정책과 이종익 |
| | 전북 장수, 전국 제1의 화훼단지 육성 | 유통공사 전북지소 임선국 |
| | 영국 인터넷무역 수퍼마켓으로 확대 | 화란농업무역관 고창곤 |
| | 농림부, 구제역 방역 전국 총동원령 | 농림부 가축위생과 김창섭 |
| | 기획특집 / 일본의 '포장용기 리사이클법' 세부내용 | 오사카농업무역관 박성국 |
| 제177호 (4. 7) | 2000년 화훼 판매촉진비 지원공고 | 유통공사 수출개발1팀 황형연 |
| | 중국 식품박람회 참가신청 15일 마감 | 유통공사 박람회사업팀 오창준 |
| | 경남 '시설딸기 고급기술교육' 실시 | 경남농업기술원 교육훈련과 |
| | 농림부, 의사구제역 관련 '생석회' 적정사용 요청 | 농림부 의사구제역특별대책협의회 |
| | 수산물, 죽제품(돗자리 등) 생산업체 찾습니다 | 한미식품조사연구소 신현곤 |
| | 한국식품 대미수출시 철저한 현지시장조사 강화 필요 | 한미식품조사연구소 신현곤 |
| | 중국 최대 '광동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 북경농업무역관 최영일 |
| | 일본, 의사구제역 가축 긴급대책 발표 | 오사카농업무역관 김호동 |
| | 미, 성분강화식품 급성장세 | 뉴욕농업무역관 이유성 |
| | 기획특집 / 세계 신선과일·채소의 수급동향과 2000년 전망 | 하석건 프랑스 조사전문위원 |
| 제178호 (4. 11) | 한국 '배' 수출국가 대폭 확대 | 국립식물검역소 식품안전과 |
| | 산지가공업체 판매지도 상담회 개최 | 유통공사 홍보팀 신동준 |
| | 두부, 된장 등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 |
| | 농진청, '농축산물 수출확대연찬회' 개최 |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기술과 |
| | 2000년 한국방일수출촉진단 참가안내 | (사)한일경제협회 교류협력팀 |
| | 한국산 돈육 금수조치로 일 수입돈육 가격 상승 | 오사카농업무역관 김호동 |
| | EU, 일부 수산품 관세인하 | 뉴욕농업무역관 이유성 |
| | 중국 성도에 서부최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 북경농업무역관 최영일 |
| | 일, GM원료 표시의무화 | 오사카농업무역관 박성국 |
| | 미, 유기농산물 검사 의무화 | 한미식품조사연구소 신현곤 |
| | 기획특집 / 인삼이 CITIES조약에 포함될 경우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유통공사 수출개발처 |

| 발간호(일자) | 제 목 | 자 료 원 |
|---|---|---|
| 제179호 (4. 14) | 유통공사, 화훼류 우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유통공사 수출개발1팀 황형연 |
| |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계획 | 유통공사 수출조성팀 문태곤 |
| | 채소 1종, 과수 26종 품종보호권 등록 |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 조영건 |
| | 농림부, 국내외 인터넷 도메인 대량 확보 | 농림부 식품산업과 박영호 |
| | 농진청, 신품종 나리 5종 육성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
| | 센다이 김치문화제 참가업체 모집 | 유통공사 일본팀 하상목 |
| | 유럽지역 수산물 시장개척단 모집 | 유통공사 수출개발1팀 오세원 |
| | 일본 절화류 2000년 전망 '보합세' | 오사카농업무역관 김호동 |
| | 미·일 식물검역 간소화 합의 | 오사카농업무역관 김호동 |
| | 일, 올해 하우스밀감 생육 순조 | 오사카농업무역관 김호동 |
| | 기획특집 / KATIC을 통해 본 히트농산물·가공식품 동향 | 동경·오사카농업무역관 |
| 제180호 (4. 18) | 한국산 인삼, 국제거래 규제품목서 제외키로 결정 |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
| | 충북도, 인삼잼 3종 제조기술 이전 접수 | 충북도 원예유통과 |
| | 미, 한국산 수산물 수입업체·수입선 변화조짐 | 뉴욕농업무역관 이유성 |
| | '인삼산업연구센터' 출범 | 인삼산업연구센터 |
| | 대일 장미수출 급증… 일 농가 대책마련 부심 | 일본농업신문 |
| | 제주도 내년 감귤 경쟁력확보예산 대폭 확대 | 제주도 감귤과 감귤정책담당 |
| | '김치산업 발전 세미나' 21일 개최 | 경남농업기술원 이상대 |
| | 기획특집 / KATIC을 통해 본 히트농산물·가공식품 동향 | 뉴욕·북경농업무역관 |
| 제181호 (4. 21) | 싱가폴 식품박람회서 김, 홍삼차 등 대인기 | 유통공사 박람회사업팀 장시현 |
| | 수출유망작목 '채두(풋강낭콩)' 신작형 개발 | 경북농업기술원 정종도 |
| | 한국, 산동성 제1의 무역대상국 부상 | 북경농업무역관 최영일 |
| | 미역원료 스낵 네덜란드서 인기 | 화란농업무역관 고창곤 |
| | 등굴레차 제조·수출업체 찾습니다 | 동경농업무역관 류명근 |
| | 안심·등심 등 돈육 수출부위 수매 비축키로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최염순 |
| | 한·중 수출농단사업 본격 추진 | 한국농업시설협회 |
| | 미국산 토마토 일시장 진출 '성공적' | 뉴욕농업무역관 이유성 |
| | 일본속의 '한국김치 인기몰이' | 일본 농업신문 |
| | 기획특집 / KATIC을 통해 본 히트농산물·가공식품 동향 | 화란·싱가폴농업무역관 |

| 발간호(일자) | 제 목 | 자 료 원 |
|---|---|---|
| 제182호 (4. 25) | 26일부터 양일간 '화훼류 우수바이어 초청행사' 개최 | 유통공사 수출개발1팀 황형연 |
| | 외국전문가 초청 파프리카·단감 기술교육 실시 | 경남농업기술원 교육훈련과 |
| | 한국김치, 일 업체와 장기계약 체결 | 오사카농업무역관 김호동 |
| | 청원국화 100만송이 대일 수출 | 충북도 원예유통과 |
| | 한국산 당면 수입희망 | 동경농업무역관 김형표 |
| | 돼지고기·돈지, 중금속 해독효과 밝혀져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이남형 |
| | 영광군 국제농업기술교류 활성화 |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정병관 |
| | 신품종 메론 '마리오네트' 일 시장 첫선 | 오사카농업무역관 김호동 |
| | 캐나다산 종자용감자 중국 수출 | 뉴욕농업무역관 이유성 |
| | 동남아지역 '한국식품 입맛들이기' 강화돼야 | 싱가폴농업무역관 백진석 |
| | 기획특집 / 중국 화훼산업의 발전현황과 대책 | 북경농업무역관 최영일 |